

영남대학교 박물관의 박물관 대학 강좌

성 태 규*

目 次

- | | |
|-----------------------|------------------|
| 1. 사회교육활동의 중요성 | 3. 박물관 대학 강좌의 전망 |
| 2. 박물관 대학강좌개설의 목적과 운영 | 참고문헌 |

1. 사회교육활동의 중요성

대학박물관의 사명은 말할 것도 없이 문화재를 수집·보관하고 전시하여 학생들의 관람을 통하여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진홍섭 1982: 5). 그리하여 한국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질적 양적 발전과 팽창은 대학내의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점증시켜 왔다. 특히 대학은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나갈 민족적 지성의 산실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그 바탕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가 대학박물관의 설치 및 그 운영의 활성화를 당위화하고 있다(안승주 1982: 21). 이처럼 대학박물관의 일차적인 기능은 연구와 학생교육에 있지만 대학 박물관은 또 하나의 기능, 즉 제 3의 기능이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대학은 연구성과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며 이 말은 대학은 스스로가 사회교육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의 개념이 오늘날처럼 확장되고 보편화되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 대학박물관의 사회교육의 기능은 더욱 강조되어도 마땅하리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이미지는 지역사회주민들과의 교류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지기도 한다. 대학 박물관은 이런 의미에서 대학의 대민창구이기도 하다. 대학박물관은 대학과 지역주민들과의 교류가 아주 자연스럽게 폭넓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소극적으로는 전시공간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법이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여러가지 문화사업 즉 박물관 강좌, 강연회를 개최하여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힘쓰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도리어 대학박물관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정신적인 협조와 물질적인

* 영남대학교 박물관

도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대학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리하여 지역주민들의 성원과 애정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학이 되는 것이다.

대학박물관의 사회교육은 대학박물관의 연구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 중에는 자신이 속한 향토의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박물관에서 행하는 사회교육은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각과 새로운 자료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역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향토문화에 관한 지식은 박물관의 연구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대학 박물관의 사회 교육활동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니라 지식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대학박물관의 사회교육은 문화에 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모아줌으로써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 준다. 동일한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받고 또한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은 물론 같은 관심과 주제하에서 지역사회의 문화풍토를 진작시킬 수 있는 활동의 토대를 구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활동이 사회적으로 집적되면서 그 지역사회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다.

대학박물관의 사회교육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들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한 가정 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박물관 강좌에서 습득한 지식은 곧 바로 가족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박물관에서 상대한 대상은 한 명이지만 그 가족성원들에게 까지 그 영향이 미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의 파급효과는 몇 배로 증가가 되는 것이다. 특히 강좌 대상이 주부일 경우는 아동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대단히 크다. 지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연령층들에게 있어 부모의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관심은 그들의 장래에 무척 큰 영향을 미칠것임에 틀림이 없다. 우선 그들에게 올바른 우리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고취시킴으로써 우리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될 것이고 이것은 주체성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교육의 모든 효과들은 대학 박물관에서 일방적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무한하게 주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와같은 효과들은 궁극적으로는 박물관에 대한 관심으로 되돌아 와서 대학박물관의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다.

2. 박물관 대학강좌개설의 목적과 운영

1) 설립목적과 설립과정

영남대학교 박물관은 대학의 사회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강좌를 1990년 1월에 개설하여 지금까지 이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 설립목적은 지역사회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한국의 전통문화 및 박물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비교문화론적인 입장에서 외국문화에 대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1989년 신축박물관이 완공되고 전시를 마치면서 영남대학교 박물관은 이와같은 사회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 물론 사회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수 있었던 것은 박물관내에 사회교육을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반여건이 갖추어 졌기 때문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일이었다. 1989년에 신축박물관이 완공되어 이러한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었기 때문이었다. 150여석의 강당과 비디오, 오디오는 물론, 슬라이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 짐으로써 최소한 교육여건이 준비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교육을 하기 위한 충분요건은 아니다. 시설의 조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인 조건을 갖추는 일이다. 첫째는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박물관강좌의 성격규정과 일관성 있는 교과진행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수강생들의 다양한 관심에 부응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교과과정의 진행이란 그렇게 쉬운것은 아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의 경우는 박물관강좌와 사회교육에 관심을 가진 여러 명의 학자들이 구성한 영남박물관회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영남박물관회는 1989년 11월에 만들어 졌으며 처음에는 인류학, 고고학, 민속학, 역사학, 미술사등을 전공하는 소장학자들로 구성되었다. 박물관강좌의 전체구도와 방향설정이 여기에서 논의 되었으며 박물관 강좌 설립의 기초작업도 영남박물관회에서 이루어 졌다. 영남박물관회는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기획하고 있는 박물관대학 강좌를 위임을 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박물관 강좌의 수료생이 배출되면서부터는 이들 중에서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로써 영남박물관회는 자연스럽게 시민문화단체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 지역사회주민들이 영남박물관회의 다수의 회원으로 자리하면서 영남박물관회의 회장직과 임원직들도 박물관강좌의 수료생인 지역사회주민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박물관 강좌의 실질적인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박물관 강좌의 활성화를 가져다 주었다. 수료생과 수강생 모두가 박물관강좌에 대하여 스스로 주인의식과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박물관을 이용하는 다각적인 활동도 전개되었다. 즉

수료생들이 기수별로 답사행사를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시의 적절하게 주제를 선정하여 강연회를 가지는 등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2) 운영방법

영남대학교 박물관과, 소장학자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영남박물관회는 1990년 1월 15일 “박물관 대학 성인강좌”라는 이름을 걸고 지역사회주민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대학 성인강좌 1기생들의 수업을 시작하였다. 출발 당시 가장 우려했던 점은 수강인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였다. 대구지역에서는 당시 이렇다 할만한 문화강좌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도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수강생모집에는 다각적이고도 집중적인 홍보의 노력도 있었지만 1기생의 지원자수는 우려한 바와는 반대로 모집정원인 150명을 넘어선 200여명이 지원했다. 수강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한 것은 강당의 수용능력이 150여석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150명외의 나머지 수강 신청인원은 2기생으로 등록하게끔 하였다.

박물관대학 성인강좌 1기의 교과과정은 인류학, 민속학,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등 여러 분야의 강좌를 개설하였는데 이것은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기초지식을 체계화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교과목의 배열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수업진행에 있어서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앞 시간의 강의 내용과의 연관성을 설명해 줌으로써 수강생들이 교과진행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재를 만들어서 수강생들에게 미리 배포함으로써 교과과정의 흐름을 숙지하게 하였다. 또한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 시간을 배정하여 미리 수강생들끼리의 연결고리를 만들게 하였다. 수강생의 연령층은 20대부터 70대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연령층이 다양한 만큼 수업분위기의 조절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였다. 유인물은 노년층에 맞추어 글씨를 크게 할 필요가 있었으며 수업시간도 50분 안팎으로 조절하고 휴식공간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해야 했다.

수료후의 활동에 대비해서는 기별로 임원단을 구성했다. 우선 수료후에도 박물관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별 답사반 편성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임원단은 이런 활동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즉 답사지역과 답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박물관측에서는 수료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대의 기관이 필요했고, 기별 임원단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물관이 수료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달리 계획한 것은 기별 강연회 개최였다. 한 기가 주체가 되어 강연회를 개최하면 다른 기의 수료생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일기생들이 배출되면서 바로 활성화 되었다. 각 기마다 기별 동기생들의 특성이 있어 강연회 주제도 다양하게 선정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박물관대학 성인강좌를 수료하고 난후에도 수료생들이 박물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었다. 박물관 대학 강좌의 교과과정표는 기본골격만 유지하면서 매 기수마다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편성을 했다. 이것은 수료생을 위한 배려였다. 중급반에 진학을 하는 수료생도 많았지만 시간이나 기

타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중급반 강좌를 수강하지 못하는 수료생들이 청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였다. 이것은 박물관대학 강좌와 수료생들간에 지속적인 교류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수료생들은 박물관대학 성인강좌를 수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전문적인 강좌개설을 요구하였고 박물관측에서는 이에 바로 부응하여 1992년 1월 21일 중급강좌(인류·민족학 분야) 1기생을 모집,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중급과정의 수강대상은 박물관대학 성인강좌를 수료한 사람들로 제한을 했다. 인류학 분야의 전공 심화과정에 해당하는 강좌였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기초지식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중급과정에도 수강인원이 140여명이었다. 그리고 중급강좌(인류·민족학 분야)에 이어 개설된 중급강좌(고고·미술사분야)에는 198명이 지원을 했다. 강당의 수용능력을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수강생들의 열의에 못이겨 보조의자를 가져다 놓고 수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일은 중급반(인류·민족학 분야) 1기를 수강한 수료생들이 수업내용에 따라 현지답사반을 편성, 1992년 8월에 1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에 있는 우리 문화 유적지를 현지답사 한 일이었다. 중급반(인류·민족학 분야) 수료생중에서 현지 답사 희망자들로 편성된 답사반은 인솔자를 포함해서 35명으로 구성되었다. 중국에 있는 우리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로 연변과 심양지역에 답사의 포커스를 맞추었다. 답사를 실시한 후에는 국내로 돌아와서 답사의 성과를 토론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 행사를 통해 수강생과 수료생 모두가 현지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중급과정을 수료한 수료생들은 그동안 매력을 가져왔던 현지답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과정의 필요성을 건의해 왔고 영남박물관회와 박물관측은 이들을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답사 중심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먼저 국내에 소재하는 유적지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문화 답사반 교과과정을 마련하였다. 수강대상의 대부분이 가정주부들이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답사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고 하루만에 답사를 행할 수 있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히 답사지역선정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거리가 먼 곳은 아침 일찌기 출발을 하여 그 날 돌아올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다소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교과과정표는 답사 지역에 대해서 일주일에 3시간씩, 2주연속으로 답사내용에 관한 집중적인 강의를 박물관 강의실에서 실시하고 그 다음주에 현지답사를 행하게끔 구성하였다. 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 내용과 현지자료를 적절하게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답사를 위한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현장강의에 필요한 유인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의실에서 강의를 수강하였지만 현지의 유물이나 자료를 보다 잘 이해하겠끔 하기 위해서는 답사를 위한 보조자료들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외에도 답사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사전답사가 필요하다. 사전답사에서는 시간 계획표가 작성되어야 하며 답사의 행선 경로도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식사를 할 장소라든지, 버스를 회차시킬 장소라든지 휴식할 장소라든지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한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답사일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전답사는 매우 중요하다.

영남박물관회는 영남대학교 박물관으로 부터 박물관대학 강좌를 위임받아 이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여러 자료들을 정리하고 박물관 대학 강좌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남박물관회 소식”이라는 제호로 소식지를 발간하여 영남박물관회 회원들과 박물관대학 강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것은 소식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박물관 대학 강좌의 역사를 기록 보존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 “영남박물관회 소식”지는 박물관 대학 강좌 수강생을 모집할 때에도 훌륭한 홍보물역할을 해 주었다. 회지를 받은 회원들이 주위에 회지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식지는 회원들에게 박물관에 관한 근황이나 문화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 박물관에서는 박물관대학 강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설문지 조사 내용이다. 이 내용들은 박물관 강좌를 계획하고 있는 대학박물관에 얼마간의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에서 그 내용을 기술한다. 조사대상은 박물관대학 성인강좌 4기생들이었는데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해 주어서 분석의 정확성에 도움을 주었다. 먼저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연령층을 보면 40대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 50대, 60대순이었다. 이는 박물관대학 강좌수강생들의 전반적인 연령분포와도 그의 일치한다. 40대가 가장 많은 이유는 슬하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가사일에서 부담을 덜 느끼는 연령층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가사일에서 해방되면서 이때까지 잠재되어 있었던 지식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는 연령층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전공분야를 분류해 본 결과 인문계와 이공계가 반반 정도로 나타나 학교재학시의 전공과는 별 관계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과거 직업으로는 가정주부가 가장 많았고 직장을 가졌을 경우에는 교사출신이 단연코 많았다. 그 다음이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했던 사람, 공무원, 회사원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은 24명이 기타란에 체크를 했는데 주부가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직업분포가 개인 사업, 의료계 종사자, 공무원순이었다. 대부분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종들이었다. 그리고 박물관 대학 강좌에 수강신청을 하게 된 동기를 파악해 보았는데 42명중 26명이 박물관대학 강좌의 수료생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여 수료생들의 홍보활동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이 신문을 통해 알았다는 사람들로, 9명이 응답했다. 예상외로 라디오, 텔레비전의 홍보효과가 저조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시청률이 떨어지는 시간에 방송이 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강이유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바로알기 위해서라는 답은 34명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이 여가선용이었으며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답도 4사례가 나왔다. 이로써 박물관대학 강좌 수강의 목적은 지식탐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물관대학 강좌를 수강하기 이전에 다른 단체에서 이와같은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사

람들이 34명으로, 이와 유사한 강좌에 이전부터 관심을 가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수강생모집에 있어 자격요건을 질문한 바, 고졸이상이면 수강이 가능하다는 사람이 22명, 학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16명이었는데 이는 박물관대학 강좌에 크게 학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추는 것이 수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강 연령층에 대해서도 질문해 본 바 연령에 제한을 두지말자는 응답이 22사례로 가장 많았고, 25세에서 60세미만으로 제한하자는 답도 7사례가 있었다.

수강생모집에 이어서 선별방식으로는 학력과 연령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29사례로 제일 많았고 학력과 연령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6사례 있었다.

수강료의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91년 8만원)수강료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16사례로 제일 많았고 싼편이라는 의견도 11사례가 있었다. 비싸다고 응답한 사례도 2사례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현재의 수강료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강생의 수강규모는 100명선이 적당한 것으로 밝혀 졌으며 교육기간은 주 1회 출석으로 1년간이 좋다는 사례가 25사례로 제일 많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6개월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런 의견을 제시한 수강생들은 대부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강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강의 요일로는 목요일을 선호하고 있으며(27사례) 그 다음이 화요일이었다. 일요일은 선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강의시간은 3시간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2시간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7사례로 3시간 다음으로 많았다. 강의시간대는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반반씩이라는 3항목을 제시한 결과 오후가 23사례로 가장 많았고 오전은 14사례, 오전오후 반반씩은 5사례였다. 가정주부들이 많은 까닭으로 일과가 바쁜 오전보다는 오후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름학기동안에 방학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사람과(22사례) 필요없다는 사람(20사례)이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는데, 필요하다는 사람중에는 8월(10사례)과 7월(6사례)에 방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기간은 10일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30일간을 방학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많았다.

학문분야중 관심있는 분야에 대하여 물어 본 바 역사학과 민속학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인류학과 고고학이었으며 미술사, 예능, 사상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의내용전반의 수준을 물어 본 바 적정하다는 답이 22사례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보통이다(17사례)라는 대답이었는데 낮다는 사례도 1사례가 나왔고 너무 높다는 사례도 1사례 나왔다. 이로 보아서 대부분이 강의 수준은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사진의 수준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좋은 편이라고 답한 사례가 31사례로 제일 많았고 그저 그렇다는 답도 7사례가 나왔다. 그리고 최고 수준이라고 답한 사례도 4사례가 나왔는데 이로 보아서 강사진에 큰 불만은 없으나 그렇다고 최고로 만족할만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강의방법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강의 2시간, 시청각교육 1시간이 좋다는 사례가 25사례로 제일 많았고 강의비중을 줄이고 시청각교육을 늘여야 한다는 사례도 12사례가 나와 시청각교육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장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사례가 42사례로 응답자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장교육에 관심이 많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현장교육은 3회이내에서 실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4번 정도가 좋다는 사람도 11사례로 2번째로 많다. 가보고 싶은 답사지로는 문화유적지를 첫째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이 옛도읍지이다. 그리고 옛 사찰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 강좌를 수강하면서 알게된 사람수를 물어 봤는데 사귀 친구가 없다는 사람이 19사례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1~2명(9사례)이었는데 이는 수업외에 사교적인 활동은 별로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음은 박물관내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질문하여 보았는데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21사례로 제일 많고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17사례로 그 다음이다. 이로부터 박물관에서 기회만 부여한다면 자원봉사를 할 재원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강중 불편사항으로는 별로 없다는 사례가 23사례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강의중 수강생출입이 수업에 방해가 되고 있음이 8사례가 나와서 수업시간에 정숙을 지켜 줄 것이 요구되고 있다.

박물관대학 강좌를 수강하면서 전시실을 몇번 관람한지를 물어 본 바 2~3번이 가장 많았고 4~5회를 관람한 사람도 그 다음으로 많았다. 대체로 박물관 전시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람시 불편사항으로는 전시유물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박물관 대학 강좌 수료생들의 건의에 따라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수집을 위한 조사를 하였는데 먼저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해 보았다. 외국문화를 소개하는 강좌개설의 필요성을 물어 본 바, 필요하다는 사람이 41사례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사례는 불과 1사례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가장 관심가는 나라의 문화를 알아 보았는데 중국이 28사례로 압도적이었으며 그 다음이 일본, 인도 순이었다. 현지답사를 안내할 강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현장강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은 질문지를 통한 수강생들의 의견수렴은 박물관대학 강좌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되었다. 수강생 및 수료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1992년 1월에는 박물관 대학 성인강좌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급강좌(인류·민족학 분야)를 출발시켰으며 그 해 11월에는 중급강좌(고고·미술사 분야)를 시작했다. 그리고 1994년 4월에는 중급강좌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류·민족학 분야(해외문화 현지 답사반)과 인류 민족학 분야(한국문화 현지 답사반)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4년 11월에는 고고·미술사 분야(한국문화 현지 답사반)이 출발하였다. 물론 박물관 대학 성인강좌는 그동안 계속되어 현재 11

기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다음은 그동안 박물관 대학 강좌에서 실시한 교과내용과 현지답사의 내용 그리고 수료생들이 중심이 되어 개최한 강연회 내용들이다. 교과내용은 지면상 한 사례씩만 소개한다.

박물관대학 성인강좌 교과 내용

개설강좌와 담당교수

○ 인류와 문화	권이구 영남대
○ 선사시대의 문화	정영화 영남대
○ 삼국시대의 고분문화	김용성 영남대
○ 한국사의 흐름	이병휴 경북대
○ 영남사림파의 형성과 그 전개	이수건 영남대
○ 한국인의 조상숭배	임돈희 동국대
○ 한국인의 가족생활	이창기 영남대
○ 마을과 친족생활	조강희 영남대
○ 한국인의 일생	성태규 영남대
○ 한국의 민속신앙	박승길 효성여대
○ 영남지방의 민속놀이	이장섭 문예진흥원
○ 한국인의 주거생활	조세환 경주대
	주남철 고려대
○ 세계의 미술관	이종철 국립민속박물관
○ 한국미의 특징	민주식 영남대
○ 불교미술	문명대 동국대
	임영애 동국대
○ 석굴암의 구조	김익수 영남대
○ 한국의 회화	유홍준 영남대
○ 도예의 전통	윤용이 원광대
○ 영남문화의 전통	김택규 영남대
○ 한국인의 의생활	소황옥 중앙대
○ 한국인의 식생활	윤서석 전중앙대
○ 한국문화와 의료생활	박정숙 계명대

중급과정(인류·민족학 분야) 교과 내용

개설강좌와 담당교수

○ 인류학, 민족학, 민속학	권이구 영남대
-----------------	---------

- | | |
|----------------------|-------------|
| ○ 비교문화론 | 이문웅 서울대 |
| ○ 한중일 수도작 문화의 비교 | 김택규 영남대 |
| ○ 어촌의 생활문화 | 전경수 서울대 |
| ○ 한국인의 민속종교와 신흥종교 | 장철수 정신문화연구원 |
| ○ 육아의 관행과 어린이 인격 형성 | 여중철 영남대 |
| ○ 한중일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 이광규 서울대 |
| ○ 어촌의 축제 : 별신굿 | 이필영 한남대 |
| ○ 제주해녀의 일상생활 | 이창기 영남대 |
| ○ 프랑스 산촌의 생활문화 | 박성용 영남대 |
| ○ 해외한인의 이주와 적응 | 이광규 서울대 |
| ○ 파푸아 뉴기니아의 인간과 문화 | 이태주 국제협력단 |
| ○ 대만의 고산족 | 전경수 서울대 |
| ○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 이문웅 서울대 |

중급과정 (고고·미술사분야) 교과 내용

개설강좌와 담당교수

- | | |
|-----------------|-------------|
| ○ 선사시대의 문화(석기) | 이선복 서울대 |
| ○ 선사시대의 문화(청동기) | 지건길 경주박물관 |
| ○ 한국의 고분 | 강인구 정신문화연구원 |
| ○ 한국의 고분벽화 | 이태호 전남대 |
| ○ 한국의 민화 | 박해동 영남대 |
| ○ 한국의 문인화 | 유홍준 영남대 |
| ○ 한국의 토기 | 한영희 전주박물관 |
| ○ 한국의 도자기 1 | 최 건 해강도자박물관 |
| ○ 한국의 도자기 2 | 윤용이 원광대 |
| ○ 한국의 불교조각 | 임영애 동국대 |
| ○ 한국의 불교미술 | 홍윤식 동국대 |
| ○ 한국의 불교 | 문명대 동국대 |
| ○ 한국의 금속공예 | 이호관 문화재연구소 |
| ○ 한국의 목공예 | 박영규 용인대 |
| ○ 한국의 목조건물 | 김동연 문화재연구소 |
| ○ 한국의 석탑 | 정영호 교원대 |
| ○ 한국의 근대미술 | 김윤수 영남대 |
| ○ 중국고고학 | 김병모 한양대 |

- | | |
|----------|----------|
| ○ 일본의 미술 | 박은화 이화여대 |
| ○ 인도의 미술 | 이주형 서울대 |
| ○ 중국의 미술 | 한정희 홍익대 |

해외 문화답사반 교과 내용

남미문화답사반 : 담당교수 - 전경수 서울대

강의일정

- 왜 문화인가?
- 남미란 어떤 곳인가?
- 잉카문명을 찾아서
- 아마존을 찾아서
- 안데스의 원주민
- 남미의 한국이민

국내문화답사반(인류민족학분야) 교과 내용

개설강좌와 담당교수

- | | |
|-------------------------|-------------|
| ○ 성주의 무흘구곡 | 최종현 우리공간연구소 |
| ○ 영남지역의 문화와 역사 1 (퇴계학과) | 조강희 영남대 |
| ○ 가사문학과 담양지역 | 최종현 우리공간연구소 |
| ○ 영남지역의 문화와 역사 2 (남명학과) | 조강희 영남대 |
| ○ 경주 최남복과 백연구곡 | 최종현 우리공간연구소 |
| ○ 한국의 옛도시, 산업형 도시 | 박현수 영남대 |

국내문화답사반(고고미술사분야) 교과과정

개설강좌와 담당교수

- | | |
|--------------------------|-------------|
| ○ 현지답사와 사진자료 | 박현수 영남대 |
| ○ 고령의 고분군과 가야문화 | 김용성 영남대 |
| ○ 백제의 고분과 산성 | 서오선 국립공주박물관 |
| ○ 불교미술, 석탑과 부도 | 정명호 동국대 |
| ○ 사찰과 고건축(해인사, 통도사, 기림사) | 최종현 우리공간연구소 |

현지답사 실시 내용

일 시	참 가 자	장 소	
1990년도	7. 8	성인강좌 1,2기생 공동답사	• 하회 유성룡선생 고택과 충효당
	9. 2	성인강좌 2기생 2차 답사	• 경주 황성동 유적지, 황룡사, 망덕사지, 선덕여왕릉
	10. 25	성인강좌 2기생	• 감포 감은사지, 문무왕 수증릉, 경주 양동민속촌
	11. 20	1기생 동기회	• 백제문화유적지, 국립공주박물관, 부여박물관, 정립사지, 무녕왕릉, 낙화암
	3. 9	3기생 동기회	• 경주유적지, 고분공원, 신라요, 경주 양동민속촌
1991년도	4. 19	3기생 동기회	• 백제문화권, 공주박물관, 부소산성, 무녕왕릉
	5. 12	1기생 동기회	• 익산 미륵사지, 왕궁지, 전주박물관, 남원실상사
	9. 12	4기생 동기회	• 공주, 부여, 무녕왕릉, 공주박물관, 낙화암
	10. 18	3기생 동기회	• 익산 미륵사지, 왕궁지, 국립전주박물관
	12. 3	정회원 답사	• 송광사
1992년도	3. 17	중급반(인류·민족학 분야 1기)	• 은양민속박물관, 예안이씨 민속마을, 삼교천
	3. 27	4, 6기생 동기회	• 안동 하회마을, 금계 학봉 종택
	6. 11	성인강좌 6기생 답사	• 경주 천마총, 신라요, 양동
	8. 7 ~18	중급반(인류·민족학 분야 1기) 답사	• 고구려, 발해유적지, 백두산, 연변, 북경, 심양, 계림,
	10. 22	성인강좌 6기생 답사	• 서울 호암갤러리, 중국 명청시대 회화전
	11. 12	정회원 답사	• 해남 대흥사, 윤선도 생가, 강진 다산 초당 등
1993년도	12. 11	성인강좌 7기생 답사	• 천마총, 황남대총, 신라요, 분황사, 양동민속마을
	3. 29	중급강좌 1기(고고·미술사 분야)답사	• 화순군 운주사 일대(운주사→구례 화엄사)
	4. 23	성인강좌 7기	• 부여·공주권 답사
	6. 15 ~16	중급강좌(인류·민족학 분야)2기	• 거제도 인류, 민족학 답사(대구→도장포, 해금강 마을조사→거제도 포로수용소→거제박물관→해금강)
	7. 15	성인강좌 8기	• 경주답사(경주 양동민속마을)

일시	참가자	장소
1993년도	7. 26	중급강좌(인류·민족학 분야) 2기 • 강화도 문화유적지 답사(강화도 역사관→갑곶→고려궁지→용흥궁→고인돌→오층석탑→광성보→초지진→전동사)
	10. 5~7	중급강좌(인류·민족학 분야) 2기 • 제주도 답사(동북마을→성읍민속촌→중문→여미지→어로민속박물관→추사적거지→금악마을→목석원→자연사박물관→중문)
	10. 21	성인강좌 8기 답사 • 안동 하회민속마을→학봉종가
	10. 27	정회원 답사 • 중원문화권(동춘당 종가→명계 윤증선생 고택)
	12. 10	중급반 및 성인강좌 답사 • 국립현대미술관 '아! 고구려' 전
1994년도	2. 1	중급반 답사 • 호암갤러리, 고려불화전
	3. 7	중급반 답사 • 여주군 신록사일대
	3. 25	성인강좌 9기 답사 • 경주(남산, 고분)
	4. 25	고고미술사 2기 답사 • 상당산성, 청주박물관, 고인쇄박물관, 법주사
	5. 6	성인강좌 9기 답사 • 안동(부석사, 소수서원, 봉정사)
	6. 1	국내문화답사반 답사 • 성주(무흘구곡)
	6. 24	국내문화답사반 답사 • 안동(퇴계종가, 내앞, 안동민속박물관)
	7. 15	국내문화답사반 답사 • 담양 일대
	8. 5	국내문화답사반 답사 • 남명 조식선생 유적지
	9. 16	국내문화답사반 답사 • 경주 백연구곡, 용산서원
	10. 7	국내문화답사반 답사 • 근대도시(군산)
	10. 27	성인강좌 10기 답사 • 안동(하회마을, 학봉종가)
	11. 7~8	정회원 답사 • 동학혁명 유적지 일대
	12. 8	'중국 요녕성 지역의 선사문화' • 김영희(현 중국 신타유지박물관 학예연구원)
	6. 3	'연변 교포의 문화' • 이광군(노신미술대학 교수)
	10. 21	'한국의 미' • 김원용(한림대 교수)
	2. 5	'현대회화 보는 법' • 김윤수(영남대 교수)
	2. 27	'바람직한 한민족문화형성을 위한 제언-미국문화가 한민족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면서-8' • 권이구(영남대 박물관장)
	4. 9	'국제화 시대의 한국 경제와 문화' • 이동엽(신용보증기금 대구본부장)
	5.	'자녀교육과 부모의 역할' • 김봉소(경북대 교수)
12. 5	'백제의 불상조각-그 성격과 변천-' • 김원용(한림대 교수)	

일 시	참 가 자	장 소	
1994년도	4. 24	'현대사회와 정신건강'	• 장현갑(영남대 교수)
	4. 26	'현대 예술품을 보는 법'	• 김운수(영남대 교수)
	6. 24	'현대생활과 먹거리 문화'	• 성삼경(영남대 교수)
	11. 5	'생명운동의 이론과 실천'	• 김종철(영남대 교수)
	11. 25	'온고지신'	• 이상순(전 경북고등학교장)
	3. 25	'역사적으로 본 중국의 어제와 오늘 - 중국의 근대사를 중심으로 -'	• 황서생(재한 중국민항 대표)
	11. 30	'고구려의 고분벽화'	• 안휘준(서울대 박물관장)
	12. 8	'새로운 문화창조와 여성'	• 박혜경(영남대 교수)

3. 박물관 대학 강좌의 전망

박물관 대학 강좌를 운영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경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정보시대가 되면서 지역사회주민들의 지적 욕구는 더욱 높아 질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대학 박물관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속에서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지역사회주민들의 이러한 욕구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와 관련된 여러활동과 정보의 센터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이 그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주민들과 지속적인 연관관계를 갖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박물관대학 강좌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문화단체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주민들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다져나가고 교내 각과의 교수, 학생들의 작품전시회도 유치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게 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제 사생대회나 문화제에 관한 응변대회, 글짓기 대회, 유물 모조품 만들기 등을 열어 성인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활동은 결국 박물관을 포함하는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는 곧 지역사회와 더불어 존재하는 대학의 바람직한 상을 적립시켜 줄 것임에 틀림 없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1) 안승주 1982, 한국 대학 박물관의 현황과 문제점 고문화 21, 한국대학 박물관 협회
- 2) 진홍섭 1982, 한국 대학 박물관의 회고와 전망 고문화 21, 한국대학 박물관 협회